

'여객선 공영제' 신안군 연료운반선 신규 취항

228t 규모 '1004에코호' 운항...LPG·휘발유·생필품 등 운송

전국 최초로 공영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신안군이 이번에는 섬 주민들에게 연료와 생필품 등을 공급할 연료운반선을 취항시켰다. 신안군은 지난 11일 압해읍 송공항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4에코호' 취항식을 가졌다.



228t 규모의 차도선 '1004에코호' (사진)가 건조와 시험운항 등 각종 검사를 마치고 취항했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1004에코호는 국비 10억, 군비 15억 등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됐다. 5t 트럭 8대를 선적할 수 있고 승선인원은 15명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의 섬 주민들에게 LPG, 휘발유 및 생필품 등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선박 내 크레인 2기를 설치해 해양에 밀려드는 광생이도지반과 해양폐기물

을 적기에 수거·운송할 수 있는 다목적 화물선이다. 1004에코호는 압해·지도·중도권, 비금·도초권, 신의·하의·장산권 등 3권역으로 나눠 운항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연료와 생필품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상교통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현대삼호중, 외국인 조선 인력 양성 힘쓴다

목포과학대학교 업무 협약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역 대학과 손잡고 극심한 서남권 중소 조선북업체의 인력난 타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1일 목포과학대학교 등과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 (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기업은 유학생 비자 전환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과 유학생 법적 학점 인정을 위한 사내 현장실습 제도 마련, 실습 공간과 기자재 지원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어 등을 가르치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현장 실습 등 2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이 끝난 외국인인 5년간 전문취업비자(E7)를 받아 대불산단과 삼호산단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설명했다.

서남권 조선산업은 경남권과 비교해 배후 인력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지역 조선업체의 수주 증가로 2025년까지 9000여 명의 조선 기능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삼호중 관계자는 "사내 기술교육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현장 실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궁극적으로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선산업 기반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전통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발표

박영기씨 '전복 지압과 향통' 대상

완도군은 지역 특산품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2022 완도군 관광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최근 개최하고 입상작 12점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관광 기념품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민·공예품, 공산품 등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광 기념품 공모작을 접수한 결과 총 4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상징성, 시장성, 심미성, 창의성, 작품 완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대상은 전복 껍데기와 나무의 부드러운 질감을 이용해 만든 박영기 씨의 '전복 지압과 향통' (사진)이 차지했다.

금상은 이예진 씨의 범바위의 전설이 담긴 보드 게임, 은상은 권혁수 씨의 책갈피 세트, 배종길 씨의 완도군 전복면 휴지, 동상은 김지은 씨의 자개 그림 탁, 키링, 헤어 끈, 감미희 씨의 돌레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기념품 3종, 배철지 씨의 전복 펜던트 등이 선정됐다.

대상은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각 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입선·아이디어상에는 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오세요! 진도 바다로

관매도 해수욕장 등 4곳 15일 개장...해변 가요제·페스티벌 등 예정

진도군 관매도 해수욕장(사진) 등 4개 해수욕장이 오는 15일 개장한다.

가게, 금강, 신전, 관매도 등 4개 해수욕장은 오는 8월 15일까지 32일 동안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은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과 사전 환경 정비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와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해변 가요제, 콜럼버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해 피서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진도군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해양경찰, 119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에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박성룡 시인 20주기 해남군 16일 학술대회

박성룡 시인 추모 20주기를 맞아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해남군은 오는 16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풀잎의 시인, 자연의 노래 박성룡'을 주제로 전국학술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1930년 해남군 화원면에서 태어난 박 시인은 '문학예술'로 등단했으며, '풀잎', '화병정경', '과목' 등 작품을 다수 남겼다. 자연을 제재로 깊이 있는 통찰의 시를 추구했던 시인으로 유명하다.

학술대회는 1~4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 시인과 인연이 깊은 원로 문인들의 기초강연이 이뤄진다. '박성룡 시인과 영도 동인을 추억하다' (김정숙 작가)와 '시적 긴장과 정치한 언어, 박성룡의 시' (이건정 시인)가 발표될 예정이다.

2부와 3부에서는 '풀잎과 이슬, 그리고 행정 상상력' (전동진 전남대 교수), '박성룡의 초기시 연구' (이동순 조선대 교수), '박성룡 시의 인지시학적 연구' (김정우 부경대 교수), '박성룡의 시세계와 시사적 의의' (고현송 영주초 교사) 등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4부는 전남대 박중렬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학술대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ZOOM 및 명강순례문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찾아가는 노인 상담소' 진행

치매노인 실종예방 지문 등록도

완도경찰이 노인 등 인구 비율이 높고 젠더폭력에 취약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맞춤형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완도경찰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개월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으로 정해

보길면 중리, 넓도 방서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노인학대·성폭력 등 범죄피해 유무 확인, 피해자 지원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등 신고방법과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도 실시했다.

완도경찰은 사회적 약자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죄신고를 기다리는 시스템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전환, 피해 적극 발굴 및 확대우려노인 모니터링,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를 전개해 오고 있다.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지역특성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등 지역사회적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7월호

2022년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핸드메이드 전성시대

특집

-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기쁨, 수제의 세계에 빠지다
- 아가자기 공방들 폴리마켓의 즐거움 봉선동 핸드메이드 거리 아세요?
- 핸드메이드 산업의 트렌드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핸드메이드 페어'

남도 코디네이 美路 味路 남도감성 충만한 강진 체험의 맛 싱그러웠다

연중 기획-광주 한바퀴 GWANGJU TOUR

#7월 광주여행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국립광주박물관 아트피크닉 #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비엔날레관 미디어파사드 #형준발산마을

한국 현대미술 단색화 거장 박서보

"현대인들에게 그림은 치유여야 합니다"

기획-여름 휴가여행

그림과 심속으로

당신의 여름은 무엇으로 더 설레나요?

- 전국 유명 미술관 특별전 5곳
- 호젓한 남도 섬여행 6곳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① 한국 정신사와 건축문화에 소중한 유산

정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① 영화 '페인티드 베일'과 에릭 사티 '그노시엔느'